

■ 치과 칼럼

치과 임플란트 치료 과정과 기간

▶ 1235호에서 이어집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시작된 시기부터 시행되어 왔던 방법을 살펴보면 일단 임플란트 식립 후 이 임플란트를 잇몸 아래에 묻어두어 3~6개월을 기다립니다. 이후 간단한 2차 수술을 통해 잇몸을 절개한 후 임플란트 위에 원통형의 구조물을 부착하여 주위 연조직의 치유를 유도하고 수 주 후에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 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 삽입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원통형의 구조물을 동시에 부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2차 수술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료 기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장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 시술 법은 임플란트 수술에 충분한 경험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식립 고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술자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가 실패할 확률이 높더라도 90% 정도는 성공 가능하다고 하니 즉시 임플란트 수복을 생각해 보겠다 하면 시술자가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지 알아보는 게 현명하다고 하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았다고 하면서 화두로 삼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는 몇 달 만에 치료가 다 끝났다”, “누구는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끝났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어느 병원에서는 얼마 만에 다 끝내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냐.” 등등 많은 얘기를 듣게 되는데 사실 치료 기간은 치료 받을 부위의 상태와 조건, 저작 방법,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심미성을 요하는 부위나 특별한 경우 임플란트 식립 후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기도 하면서 1시간 내 치아 완성 (Tooth in an hour)이라는 표제 하에 시행되고 있지만 자세한 검사를 통해 가능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세한 검사와 철저한 치료 계획하에 시행된 시술의 경우 실패율이 통상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높은 실패율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 최종 보철물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주변 조직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작하여 삽입됩니다. 필자도 즉시 임플란트 크라운 수복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실패율이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실패율이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환자들의 동의 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시 수복은 단단히 임플란트가 고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전에 즉시 수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 법률 칼럼

상장기업

주식회사(Corporation)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법인이다. 주식회사는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발급하지만 모든 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몇 명의 주주나 회사 임원, 혹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소유되며 소유주를 통해서만 비공개적으로 주식을 양도한다. 상장기업이라 하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상태의 회사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코스닥이나 증권거래소 등의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경우 '상장' 이 된다고 표현하는데, 한 기업의 주식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심사 기준이 요구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주식시장에 신뢰를 갖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매매 대상으로 지정 받기 위하여 기업의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폭 넓게 외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상장되는 순간 사회적 평가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상장된 주식은 비공개주식(비상장주식)보다 거래가 쉽다는 장점 외에도 기업의 실제 가치가 공개된 상태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가격에 주식을 양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를 흔히 'going public' 이라고 표현한다. Initial Public Offering(IPO) 는 한 기업이 주식을 사회에 최초로 공개하여 공모함으로써 몇몇의 비공개 소유주에서 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증자 효과를 보게 되는 형태의 회사로 변형되는 과정의 첫걸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증권거래소의 감독 아래 주식 발행 기업의 매출이나 자본금, 규모, 설립 연수 등을 평가하여 산정하지만 미국에서의 IPO 공모가는 이와 달리 증권인수업무를 맡는 투자은행이나 증권사 등

의 임의대로 금융기관의 마음대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중소 규모 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내재 가치나 사업성에 따라 운영자금을 편이하게 조달받거나 기업의 규모를 크게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 벤처기업 사업가들의 경우가 이 방법을 통해 주식을 불특정다수의 외부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키며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한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식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것은 기업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기도 하며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목표라 볼 수 있다. 한국 내 주식 상장 조건은 보통 자본 300억 원 이상,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등의 규정이 있다. 미국 총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뉴욕증권거래소 역시 최근 회계연도 기준 100백만 불 이상의 매출액, 자산 7천 5백만 불 이상 등의 복잡한 요건들이 있다.

하지만 비상장 상태의 유망 중소기업들도 주식장외시장을 통해 직접 금융을 할 수 있다. 미국 장외 주식시장 나스닥(NASDAQ)의 경우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코스닥이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비상장-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는데, 상장 기업들에 비해 자본금이나 경영의 실적 등이 불확실한 신규 회사들에게도 개방된 장외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위험성과 그에 따른 큰 수익을 쫓길 수 있다는 함계 안겨준다. 나스닥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등의 대표적인 첨단기술 산업체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제는 뉴욕 거래소와 견줄 만큼의 성장을 한 상태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
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info@jlbridge.com
www.jlbridge.com
(949) 535-5275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자신에 맞는 융자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김주용 (Jay Kim)

중앙일보 주택융자 강의
Passkey MLO Review 공동저서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SNA Financial (dba Lending Plus)
kimjy9855@gmail.com

NMLS#1560314

1. 일반 주택융자
2. 재융자: Cash out 재융자, 이자율/기간 조정 재융자
3. 정부 주택융자: FHA, VA 융자, 리버스 모기지 등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문의도 환영합니다

213.332.1718

3450 Wilshire Blvd, Suite 310
Los Angeles, CA 90010